





## Philippe Battikha

Montreal based artist, musician, composer, and community organizer.

His work centers around the belief that in today's visually driven society we must pay closer attention to the impact and importance aural environments play in our lives.

By recontextualizing habitual sounds and exposing specific aural properties in sound installations, sculptures, and controlled sound environments, he explores the relationships we have to the sounds that surround us, and their affect on our experiences.

Using sound as a medium is also a way of raising the alarm on a growing cultural disregard for material waste inherent in consumer capitalism.

Special thanks to Alternative Space LOOP, Ji-yoon Yang, Sun Mi Lee, Arreum Moon, Nara Shin, Hyewon Shin, Junhyung Lee, Do-hyung Kim, Jungbae Park {aka stoneman}, Baruch Gottlieb, Dirk Fleischmann, Ji-yoon Han, Sung-wan Kim, Young-ha Shin, Matthew Gagnon Blair, Ellen Adams, and Luce, Magdy, & Billie Battik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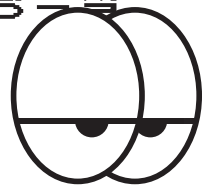
필립 바티카 개인전: 멩 때리기

Philippe Battikha Solo

Exhibition: Hitting Mung

2022/8/12-9/8 대안공간 루프

휴관: 8/15(월) 광복절



Conseil des arts et des lettres du Québec



Arts Council Korea



Québec



Canada Council for the Arts

Conseil des arts du Canada



그들 계획 중 일부는 우리의 집중력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는 소비 주체를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하고, 쓸모없는 것을 문화로서 받아들이게 하고, 본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끝없이 낭비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로 인한 과잉 자극은 주체를 피로하게 만든다.

갓 태어난 쥐에게 과도한 자극을 주었을 때, 활동량이 증가하거나 인지 능력이 결핍되고, 단기 기억이 감소하는 현상들이 관찰되었다. 이는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오픈 스크린(the open screen)의 폭압은 수 세대에 걸쳐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다. 베이비붐 세대는 텔레비전과 함께 성장한 첫 세대였고, 지금의 아기들은 그저 멍하니 아이폰을 바라보기만 한다. 머지않아 이들은 어린이로 자라 휴대폰이 선사하는, 현실의 구조를 뒤바꾼 여정을 날마다 경험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최대한 많이 소비하도록 조종당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심리학과 마케팅을 연결하는 에드워드 버네이즈 Edward Bernays의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들과 우리의 관계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자본주의의 논리는 항상 더 진화하고자 하고, 언제나 레몬에서 최대한 더 많은 즙을 짜내려는 듯이 작동한다.

오늘날, DSM-5는 오픈 소스 형태로 소셜 미디어에서 다른 매체들과 결합하며 폭발적 성장을 이룬 듯하다. 우리의 일상에서 전례 없이 많은 심리학 용어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 용어들은 모두에게 지나칠 만큼 단순화되었으며, 심리학은 자본주의에 의해 잠식당했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과학, 즉 심리학은 소셜 미디어의 마케팅 렌즈를 통해 굴절되고 있다. 또한 이는 의심과 불안,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있는 낯선 공간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가스라이팅, 트라우마, 나르시시즘, 정당화, 그리고 회피와 같은 용어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우리는 어디서 이 용어들을 알게 되었고, 이 용어들은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에 대해 적어도 “나르시시스트를 식별하는 방법”만큼이나 관심을 갖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스크롤하자. 스크롤하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스크롤하자. 해가 지고 해가 뜰 때까지 스크롤하자. 우리가 먼지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스크롤하자.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약칭 DSM)의 다섯번째 개정판으로, 미국정신의학회(APA)에서 발행되었다. 정신 질환을 다루는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서, 오늘날 정신 질환 진단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_역자



## The Allegory of the Gadget

by

Matthew Gagnon Blair

Red flags to look for in yourself  
Forceful affirmations vs validating self talk  
6 Prompts for Reparenting Self Intimacy  
Top 5 Regrets of the Dying  
How To (and Not To) Apologize  
Signs You Don't Trust Yourself  
Capturing the "It Is Done" Feeling  
Stop Gaslighting Yourself  
Moral Scrupulosity Sounds Like  
Signs that the Narcissist Has You Trauma Bonded  
Delete Him, act like you never met him, and he never happened  
Rest & Trauma  
We're Only As Needy As Our Unmet Needs

1. Am I the only one who is being bombarded by it? All of this self-help-psycho-relationship babble? Surely not. But it's so rare that you get to see what the algorithm has cooked up for someone else. This is part of the problem. And it's true I've been through some things. I'm a semi-immigrant, divorced part-time parent. I'm forty years old, which is to say I've left an indelible residue online, even if I hardly use social media anymore. Even if I keep my electronics in a separate room as often as I can. Even if I go on a thousand silent retreats. They've still got my number.

Having my number - my accumulated shopping history, news preferences, social networking, prurient interests, all of it - leads to a place (as I'm sure it does for you) where they have decided to hand me a mirror and tell me how to work on me, how to establish boundaries, identify red flags, root out gaslighters, ostracize narcissists, practice mindfulness, achieve my goals, and make money from home, all at the same time.

I'm being shown how to put my personality into a box, how to dig down into my true and unique self, refine my gender expression, discover my birth chart, learn how to move on, gain followers, stay in shape and glow. All the while images of catastrophe slide through the feed. These events - fires, fascism, mass shootings, calving ice shelves - are unfolding right now, and I am expected to relate to all of them, understand the problem, decide which side is right, have a hot take, and keep things moving.

The contrast between these two extremes - working through one's issues, and the horrifying state of the world - is punishing to the psyche, and it hardly seems worth mentioning how it is all emanating from these gadgets that we've started carrying around with us everywhere we go. How did our minds end up in the crosshairs of software? At some point these gadgets became more than just communication devices. At some point they came alive. We are holding them by the hand. Where are they taking us?

2.

The myth of projections on a screen takes us right back to Plato, to the Allegory of the Cave. But imagine that the fire is market economics, the puppeteers are the profiteers, the chains are your own desire to check in, and no one who has made it out is ever allowed back in.

The cave of flickering images can be considered a kind of a labyrinth. And there's only one way in and one way out of a labyrinth, and they are not the same thing. The inner ear is another kind of a labyrinth. The part that contains the organs of hearing and equilibrium is commonly called the labyrinth of the ear. And the ear, and what lies inside of it, can be considered a kind of map for finding one's way out. To listen is to be non-judgemental - it is not at all like cognitive thought. It is more like the dark quiet of what monks call the apophatic style of prayer, a wordless apprehension. This is a state that cannot exist in a condition of constant distraction.

그들이 나의 번호, 쇼핑 이력, 뉴스 선호도, 소셜 미디어 활동, 성적 취향 등을 알고 있다는 것은 나를 어떤 곳으로 향하게 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나에게 거울을 쥐여주며 말을 건넨다. (이는 당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어떻게 나를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경계를 그을 것인가”, “적신호를 감지하라”, “가스라이팅 하는 이들을 배제하라”. “나르시시스트들을 배척하라”, “마음챙김(mindfulness)을 훈련하라”, “나의 목표를 성취하자”, “집에서도 수익을 창출하라.” 이 모든 글귀들은 한꺼번에 다가온다.

나는 이때까지 인스타그램의 규격화된 사각형 틀 안에서 아래의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개성을 표출하기, 진실되고 독특한 자아에 집중하기, 나의 젠더를 정의 내리기, 나의 출생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갈 것인가에 대해 배우기, 팔로워 수집, 외모를 꾸미거나 유지하기

그동안 재앙의 이미지가 피드를 타고 미끄러지듯 지나간다.

화재, 파시즘, 총기 난사, 빙벽의 붕괴

이러한 사건들은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나는 이 모두에 공감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어느 쪽이 옳은지 결정하고, 논쟁하고, 헤쳐 나가야 할 것만 같다.

극복해 나가야 할 개인적 문제들, 그리고 끔찍한 세계 정세 사이에서 드러나는 양 극단의 대비는 우리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준다.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가 어디에나 들고 다니는 기계에서 시작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의 정신이 언제부터 소프트웨어의 표적이 되었는가? 기계는 언제부터인가 단순한 통신 장치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언제부터인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손으로 쥐고 있는 그들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 것인가?

2.

스크린 투영의 신화는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를 연상시킨다. 여기서 “불”을 “시장 경제”로, “인형극을 조종하는 이들”을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이들”로, “사슬”을 “기계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우리의 강박”에 대응시켜보자. 그리고 이 같은 메커니즘을 이해한 어느 누구도 절대 다시 동굴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깜박이는 이미지가 들어 찬 동굴은 일종의 미궁(labyrinth)라고 할 수 있다. 미궁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이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도 하나이다. 이 미궁의 입구와 출구는 따로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이(內耳)는 또 다른 종류의 미궁이라고 할 수 있다. 청각과 평형 기관을 포함하는 부위는 흔히 ‘귀의 미궁’이라 부르는데, 귀와 그 내부 기관은 출구를 찾기 위한 지도로 이해할 수 있다. 듣는다는 것은 판단의 과정을 동반하지 않는다. 듣기는 인지적 사고와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수도사들의 부정(apophatic) 기도 방식, “침묵의 이해”가 전제하는 어둡고 고요한 상태와 유사하다. 주위가 산만한 환경에서 이러한 상태는 성립될 수 없다.

## 기계 알레고리

매튜 가농 블레어

내면의 적신호를 감지하기

강력한 확산 vs 자기 정당화

자기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한 6가지 제안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후회 Top5

사과하는(혹은 하지 않는) 법

자기 불신에 대한 신호들

“무언가가 끝났음”을 직감하기

자신을 향한 가스라이팅 멈추기

도덕적 강박증(Moral Scrupulosity)이란?

나르시시트가 당신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줬다는 신호

그를 지워내자, 그를 만난 적도, 그가 존재했던 적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자

휴식과 트라우마

우리는 결핍된 만큼 갈망한다

1. 나만 이런 문장들에게 폭격 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일까? 물론 앞서 나열된 문장들처럼 자조(自助)적이고, 정신적이고, 관계적인 말들이 터무니없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미디어의 알고리즘이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마련하는 일은 흔치 않다.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지금까지 나는 많은 일을 겪어왔다. 내 정체성의 반은 이민자로서의 모습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혼을 겪고 파트 타임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또한 이제 사십대가 되어서 소셜 미디어를 거의 쓰지 않고 있지만, 이미 온라인에는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을 남기기도 했다. 내가 전자 기기들을 나와 분리된 곳에 두고 수없이 침묵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내 번호를 알고 있다.

Part of the plan is to break our concentration. This leaves the consumer-subject in a disoriented stupor, prepared to accept utter trash as culture, prepared to spend endlessly on whatever they see as an extension of their own lifestyle/brand. But titillation and overstimulation have a wearying effect on the subject.

In newborn mice, overstimulation leads to increased activity, cognitive deficiency, and diminished short term memory. It's pretty safe to say that the same goes for us too.

3. The tyranny of the open screen has been upon us for generations. The baby boomers were the first to grow up with televisions, and now infants watch iPhones just to zone out. Soon those infants will be kids, and those phones will be taking them on a journey, altering the fabric of their reality, day by day. The sense that we are all being groomed for maximal consumerness is simply a reality. The project begun by Edward Bernays, to link psychology to marketing practices, is still unfolding. Certainly they aren't through with us yet. The logic of capitalism is to always go a step further, always squeeze more juice from the lemon. Today, it's as if the DSM-5 (the authority for psychiatric diagnoses) has exploded into an open-source social media hybrid. Suddenly the language of psychology is upon us like never before. But it's psychology dumbed down for the lowest common denominator, and psychology cobbled together with capitalism. In other words, the science of how the mind works is being refracted through the lens of social media marketing, and it is leading us to a strange place full of doubt, anxiety, and misinformed fearfulness. Terms like gaslighting, trauma, narcissism, validation, and avoidance appear constantly. Where are we getting this language, and how is it being reproduced? These are questions we should be asking ourselves at least as much as How to Identify a Narcissist. So where does this leave us? Scrolling, scrolling. Scrolling our minds and our time away. Scrolling away while the sun rises and sets. Scrolling ourselves into dust.





나는 파도처럼 바다  
위를 떠다닙니다.

모든 생각에서부터  
마음을 비우십시오.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  
고 싶다면 당신의 마음속  
을 들여다보세요.

